

# “5월 단체 뭉쳐 5·18 경과보고 되찾아야”

### 2009년 이후 정부 관계자가 맡아 매년 왜곡·축소 논란 “기념식 보고 주체 3개 단체 힘겨루기 그만” 지적 잇따라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의 주요 식순 가운데 하나인 ‘경과보고’를 본래대로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3개 단체가 맡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의 발생과 전개과정, 의미 등 운동의 경과를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밝히는 경과보고 발표자가 광주지방보훈청 등 정부 측에 넘어간 이후 매년 왜곡·축소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경과보고를 누가 할 것인지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3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경과보

고는 지난 1997년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 이후 지난 2007년까지 줄곧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5월 신경진 당시 5·18부상자회장이 잠시 넘겨받았다. 정전 회장이 기념식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탓이다. 이 과정에서 부회장이 맡아야한다(유족회), 유족회장 독점하면 되느냐(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2009년부터는 광주지방보훈청장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장이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경과보고를 맡아왔다. 3단체장간 힘겨루기가 계속된

데다, 보훈처 등 정부가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면서 기념식이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3년간 계속되던 반쪽짜리 기념식을 끝내고 유족회 등 3단체가 참석한 올해 정부 기념식에서도 경과보고는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돌아갔다. 3단체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사의 ‘주인격’인 5월 단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5·18을 폄훼하는 정부 측 인사에게 경과보고를 맡기다 보니, 기념식 경과보고가 ‘매년 5·18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내용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기념식 경과보고 역시 ‘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계엄군과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고...’ 광주 전역으로(시위가) 확산함에 따라 계엄군의 진압작

전이 감행됐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왜곡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월 단체장이 올해 기념식을 앞두고도 경과보고 발표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5·18광주민중항쟁기념행사위 관계자에 맡기는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월 3단체가 합의점을 찾아 내년 기념식 경과보고는 꼭 되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4·19기념식, 6·10항쟁기념식과 마찬가지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역시 행사의 주인공인 5월 단체장이 경과보고를 맡아야 하지만 여러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월 단체 측이 발표자를 정해 통보해 주면 언제든 받아들여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당구는 건전 스포츠... 학교 유해시설 아니다”

### 광주지법 판결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학교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광주시 광산구 모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금지 처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뒤인 7월29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출석위원 11명 중 4명이 불허가 의견을 밝으면서 3분의2 이상 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됐고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점 등을 들어 학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시설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대학에 학교가 개설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된다. 당구장은 18세 미만 출입이 허용되고 체육특기생 입학도 가능한 점에 비해 당구장 시설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한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당구장이 학생들의 주 통행로에 있지 않고, 학교에서 당구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구장 영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 등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5·18 미공개 자료 추가공개 기념재단, 해외기록물 전시서



5·18기념재단은 “당신은 아는가? 5·18 그 위대한 연대”라는 해외 기록물 전시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5·18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26일부터 새로 선보이는 사진·문서 등 자료는 KBS광주방송총국, 신상전 전 덕성여대 총장, 김정남 전 김영삼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사회 수석비서관, 김용철 5·18 사적지 안내해설사가 기증했다.

KBS광주방송총국은 최근 5·18 관련 일본 언론의 취재활동과 일본 내 연대활동 기록물 등 총 60여점을 5·18 재단에 기증했다.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끌어내기 위해 버스에 올라타고 한편에서는 군용을 휘두르는 장면(사진), 도로 봉쇄를 위해 대화구를 설치한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이 새롭게 공개된다.

김정남 전 비서관은 1981년 일본에서 발간된 한글판 광주항쟁시선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를 기증했다. 이 자료는 다음 달 16일까지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전시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23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광주지방보훈청 과장의 성추행적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5·18 유가족 성희롱 발언’ 보훈처 간부 진상조사

### 광주보훈청, 깊은 유감 표명 오월어머니집 즉각 해임 촉구

국가보훈처 간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5·18유가족을 성희롱했다는 주장(광주일보 5월23일자 6면)과 관련, 보훈처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해당 간부가 소속된 광주지방보훈청은 이날 뒤늦게 유감을 표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피해를 본 오월어머니집 측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월어머니집은 5·18 희생자 어머니, 가족 등으로 구성된 5월단체다.

오월어머니집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국가보훈처 과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36주년 기념식 당일 오월어머니집 노영숙 관장은 제주도 4·3항쟁 희생자유족회 등의 좌석 문제를 두고 협의하던 중 보훈처 과장 A씨가 ‘자리가 없는데 내 무릎에라도 앉으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서 “보훈처 간부의 이같은 성희롱 발언은 5·18민주화운동을 대하는 국가보훈처의 모습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보훈처는 광주보훈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광주보훈청은 이

날 오후 “성희롱 논란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광주보훈청은 자료를 통해 “기념식이 임박한 시점에 ‘노관장님 자리를 찾아 보겠습니다. 좌석이 없으면 저희 무릎이라도 내어 드려야죠’라며 말했으며, 노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자리에서 사과했다. 또 22일 직접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훈처 관계자는 “광주보훈청에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면직 어쩔 수 없어”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밝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3일 오전 학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지냈고 수년간 해직된 쓰라린 경험도 있어 솔직히 싫지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입장”이라며 “직권면직을 거부하면 위법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어 안타깝게 따

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가 비록 법적인 합법성에는 다름이 있다 해도 현행법 단결권을 가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며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 간부에 대해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인 극단의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7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지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교수 채용 관련 회의록 위조 의혹 검찰 고발

###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발전위원회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발전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공문서 위조 의혹(광주일보 5월 3일자 6면)과 관련, 광주지검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냈

다고 밝혔다.

정치외교 발전위원회는 “회의록 위조 의혹에 대한 입장 차이가 현격한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대학본부에도 교수 공개 조사 관련 감사 진행 상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성 아파트 침입 시도 교고생, 입교 간 교복 단서로 ‘덜미’



○...아침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고 싶어 드려야죠’라며 말했으며, 노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자리에서 사과했다. 또 22일 직접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훈처 관계자는 “광주보훈청에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하던 종피해자 A(여·23)씨가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출렁랑쳤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이군은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본 A씨에게 반해 아파트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에서 이군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 A씨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었다. 단지 그것 뿐이다”고 진술.

○...2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17)군은 지난달 1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방충망과 화장실 창문 등을 열고 침입하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노대지구 3층 상가 건물매매**  
노대동 광주은행 코너자리

◆ 토 251평, 건 431평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원룸 8개, 투룸 5개)

□ 보 1억 6천, 월 1,500만  
□ 매가 → 28억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

<p>□ 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p> <p>→ 토 211평, 건 606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원비, 4차선 도로 접 → 법원소재 부근, 임대객정 없음</p> <p>□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p>	<p>□ 북구 운암동 (5층 상가 건물)</p> <p>→ 토 66평, 건 194평 → 지하음식점 1층~3층 (전12매) 4~5층(사무실) → 운암동 공구의거리, 광고효과 좋음</p> <p>□ 감정가 7억4천6백 - 최저가 5억9천7백</p>
<p>□ 서구 양동 (숙박 시설)</p> <p>→ 토 174평, 건 424평 → 1층 (주차장,기운터)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접</p> <p>□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p>	<p>□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p> <p>→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층 진입로, 주차원비</p> <p>□ 감정가 12억 - 최저가 9억7천2백</p>
<p>□ 담양 (전원주택)</p> <p>→ 토 146평, 건 18평 → 금성중학교 인근, (주변 식당,전원주택지)</p> <p>□ 감정가 6천 2백 - 최저가 6천 2백</p>	<p>□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p> <p>→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사무실) → 재석중학교 부근, 아파트,상가 밀집지역</p> <p>□ 감정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p>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권,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 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62-511-7800      010-6832-9700